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기도...  
청하기보다  
음성을 듣는 것.



믿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 버리기.

**[제 1독서]** 사도 4,8-12  
**[화답송]** 시편 118(117), 1과 8-9, 21-23, 26과 28-29(◎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독서]** 1요한 3,1-2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11-18

성가 11시 미사      입당 56      봉헌 214 510      성체 165 175      파견 137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4주일(4월 26일)		부활 제5주일(5월 3일)		부활 제6주일(5월 10일)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4구역 : 김순희글라라		임승원루카	1 구역 : 염명련파트리샤	정애리스텔라	2 구역 : 조선덕레지나
제 1 독서	4구역 : 구창희미카엘		최환준베네딕토	1 구역 : 최대연다니엘	정일환프란치스코	2 구역 : 심태규미카엘
제 2 독서	4구역 : 양정화젼마		최수영베네딕타	1 구역 : 이명란아네스	정영희글라라	2 구역 : 심승화헬레나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서로를 알아가는 것 - 서로를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바로 “사랑”이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그리고 실천적인 표어를 말할 때도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람들끼리 서로 안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이다. 즉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요한 10, 15)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 역시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와 더불어 서로가 사랑으로 한데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미는 더 확장되어 서로를 알고, 사랑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더 큰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알아가야 할 것이다. 호기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가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자신 안에 생기는 것이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며, 양들의 한 마리 한 마리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기에 그들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신학교에서 생활하며 신학생들의 변화를 바라보며 많은 위안과 평화를 느낀다. 처음에 입학해서 하느님, 예수님에 관하여 잘 표현하지도 못하던 신학생들이 점점 그분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모습.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하느님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된다.

그리고 그에 머물지 않고 동료들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알아가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신학생들은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성장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며 신학생들은 지적인 삶에 대하여 목마름을 느끼고, 실천적인 삶을 표현하며 묵상과 관상 중에 하느님,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범위를 무한히 넓혀가면서 예수님 닮은 목자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신학생들도 예수님을 닮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며 사제서품을 받고 양떼 곁으로 파견되어 간다.

하느님의 부르심(성소, 聖召)을 받은 이들은 그렇게 하느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며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칠 것을 결심한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요한 3, 2)

모든 것이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실하지는 않다. 신앙의 길을 걷는 것도 그럴 것이다. 처음에는 불확실하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삶이 더 깊어지면 스스로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넘쳐흐를 것이며 우리 모두가 “착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주보 “오늘의 말씀” 중에서

## 생명의 말씀 **콩가루같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

화목한 집안과 콩가루처럼 가족이 흩어진 집안은 큰 차이가 납니다. 부자라고 하여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도 가족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가난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집안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면서 가족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애쓰는 사람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하느님께서 손수 빚어내시고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창조해낸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낙원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지내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느님 곁을 스스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로 그토록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를 서로를 증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자식들인 카인과 아벨 사이에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비참함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산산이 조각난 인류 공동체입니다. 집안에서, 사회에서, 같은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에,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는 비참함이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달로 말미암아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현대인은 극소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들만 살아남는 가운데, 한 가족이 모두 모여서 밥 먹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은 속수무책으로 넋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느님께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인간 사회를 두고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여,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시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분은 여느 인간들처럼 고통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

를 향해 절규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다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분,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콩가루처럼 흩어진 현대인들을 다시 일치시키시는, 곧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주수욱신부**  
서울대교구 대방동성당 주임



나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글\_헨리 나웬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내면아이, ‘랄라’

고해성사를 하는 가운데 신부님께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미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번 미움에 휩싸이면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성체등이 켜진 감실 앞에 앉아 조용히 내면을 바라다 봅니다. 잠들어 있던 온갖 상처와 분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린 시절 작은 상처에 성장을 멈춰버린, 어린 자아인 ‘내면아이’가 있습니다.

1년의 영성심리상담 봉사자 교육과 4년의 개인 심리상담에서 얻은 큰 선물은 내면아이입니다. 내면아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유 없이 욱하고 폭발하는 감정은 그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억눌렀던 감정이나 서툴렀던 의사 표현을 어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쏟아내는 것이지요.

한번은 상담을 받던 중, 어린 시절에 인형을 가지고 놀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서운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저는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장난감이 싫다고 했습니다. 심술이 나서가 아니라 어린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년 중 말팔로서 이런 방식으로 엄마도 돕고, 제 자존심도 지켰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린 현정씨’에게 선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상담이 끝난 후 다음 상담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근처 인형가게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귀까지 들릴 정도로 심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어린 현정씨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습니다. 첫눈에 수많은 인형 가운데에서 불품없이 귀가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던 토끼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얼른 가슴에 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룰루랄라 신나게, 재미있게 살자고 ‘랄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야 비로소 어린 현정씨는 자신만의 인형 랄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보살피듯 마음속 작은 욕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면에 있는 어린 현정씨를 편히 쉬게 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랄라를 통해 어린 현정씨에게 말을 걸고 순간순간 솔직하게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어두운 밤 깊은 잠을 청할 때도 내면아이 ‘랄라’를 가슴에 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언제나 같이 다녔고 그 모습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어린 아이들의 순박한 모습을 제게서 찾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감정은 일시적이며 강렬하고 솔직합니다.

그때그때 작은 욕구들을 채워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칭얼대는 어린 아이를 보듬고 다독이는 것은 바로 세상 안에서 겸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 18,3 참조)

김현정 소화테레사  
배우/화가

성경산책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칭찬하신 모든 사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사실 결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체험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본래 시몬이며,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로에게 섭섭한 내색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21,1-23

그는 어느 날 호숫가에서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죄를 짓기에 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임을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눈물은 바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약한 우리 인간에게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운명적 순간을 살펴볼까요?

허영엽신부  
서울 대교구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4, 18-22/루카5, 1-11/마르1, 16-20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드는 제자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스승 예수님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주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도망가다가 멀리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관저 뜰 안에서 어떤 여인이 알아보자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그는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베드로가 “스승님은 ( )  
하느님의 아드님 ( )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마태16,15-16)

오늘날에도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닭 모형을 세워놓은 성당이 있습니다. 이 닭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배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 ),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 )이다. 너는 ( )의 일은 생각  
하지 않고( )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태16,23)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26, 69-75/마르14, 66-72/  
루카22, 55-62/요한18, 15-18.25-27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일곱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주님은, 베드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4월26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신마태오(현규)	익명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문유스티나(아영)견진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임크리스티나(은정)견진	이카타리나
	생	허힐다(희나)견진	이카타리나
	생	안로사(진영)외견진자들	김데레사
	생	정카타리나(경희)축일	찬미성가대
	생	정카타리나(상은)축일	찬미성가대
	생	김카타리나(아례)축일	임루시아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임루카가족	가족
	생	임스텔라가정	임루시아
	생	홍토마스	이안나(순자)
	생	한요셉/헬레나가정	이베로니카
	생	박요세피나(지수)생일	염파트리샤
4월30일 목	생	이요셉(인평)	이막달레나
5월 2일 토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59	161	23	243
헌 금	\$426	\$999	\$18	\$1,443

< 교무금 > \$2,675

유제청(4) 조상희(4-5) 정창희(4) 정일양(4)  
이영기(3-4) 김영민(4) 양우선(3-4) 이순자(3-4)  
조상호(1-4) 차영화(3-4) 최윤기(4) 송인근(1-4)  
임석호(3-4) 김근원(4-5) 이욱경(1-4) 변귀태(4)  
이명란(4)

< 성소후원금 > \$50

정창희(4) 최윤기(4) 이명란(4)

< Bishop's Appeal > \$80

김영민(4) 최윤기(4) 변귀태(4)

< 감사헌금 > -

~~~~~ 오늘은 전신자 점심이 제공됩니다. ~~~~~

- 공 지 사 양 -

- ◆ 견진성사 : 오늘 미사 중
- \* 주례 : 춘천교구 김운회 루카 주교님

☞☞☞ 견진을 축하합니다. ☞☞☞

|      |           |            |
|------|-----------|------------|
| 1 구역 | 오클랜드      | 김미라 수산나    |
|      |           | 김영균 라파엘    |
|      |           | 윤성일 사도요한   |
| 2 구역 | 유니온       | 김다솜 아델라    |
|      | 캐스트로 밸리 E | 이은자 마트로나   |
| 3 구역 | 알바니 YB    | 문아영 유스티나   |
|      |           | 유홍식 라파엘    |
|      |           | 이혜경 레아     |
|      | 알바니 OB    | 허희나 힐다     |
|      | 버클리       | 박민진 안토니오   |
|      | 리치몬드      | 임은정 크리스티나  |
| 4 구역 | 콩코드       | 박경림 글라라    |
|      |           | 김옥준 마리아    |
|      |           | 최순일 요셉     |
| 뜨락반  | 뜨락회       | 김규봉 토마스 모어 |
|      |           | 박보라 율리아나   |
|      |           | 신다운 도로테아   |
|      |           | 안진영 로사     |
|      |           | 이윤지 소피아    |

- ◆ 주교님 방문 일정 관계로 4월 28일(화), 4월 29일(수)은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 성모신심미사 : 5월 2일(토) 오전 7시 30분 (꾸리아 월례회)

- ◆ 환자봉성체 : 5월 1일(금) 아침미사 후부터

- ◆ 지속적인 성체조배  
5월 1일(금) 저녁 9시 ~ 5월 2일(토) 아침 7시

- ◆ 모임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 구역반장회의 : 오늘 미사 후 106호실
  - \* 사목회의 : 5월 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대건 장학생 선발  
지원서 : 친교실이나 사무실  
\* 성당 웹사이트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5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3  | 리치몬드/버클리 | 5월 2일(토) 5시 | 이재우야고보덕  |
|    | 알바니 YB   | 5월16일(토)12시 | 최윤기유스티노덕 |

- ◆ 서중부 여성 제10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대상 : 견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여성  
비용 : \$250  
신청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 북가주 한인성당 친선 골프대회  
일시 : 5월 16일(토) 12시까지 집결  
장소 : Wildhorse Golf Club(2323 Rockwell Dr. Davis)  
회비 : \$180(부부) \$100(개인)  
신청마감 : 4월 26일까지  
문의 : 김진홍 안토니오 916-605-6974
- ◆ 제 21차 북가주 성령대회  
주제 :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에제 36, 26)  
강사 : 이미숙 아가다 수녀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 웃음 치료사)  
일시 : 6월 6일(토) 오전 8:30 - 오후 8:30  
장소 : 산호세 성당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점심/저녁 제공, 무료 베이비시팅 제공  
문의 : 염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 ◆ 내일 월요일(4/27) 사무실 휴무입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카타리나(4/29) : 정경희, 이상주, 최옥경, 김아래, 이휘라, 정상은

안국학교 소식

- 5월 9일 : 미술특강
- 5월 16일 : 종강식 및 학습발표회
- 5월 17일 : 미사 중 노래발표
- 5월 30일 : 소풍(Six Flags)